

## 다시 새로운 길을 나서며

『학력사항』

- 경북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2005년도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37기
- 현) J&Partners 법률사무소 대표



전 병우

### I. 지난 이야기를 시작하며

한참을 고민했다.

한번은 꼭 써보리라 했던 합격기였는데 막상 기회가 주어지니 선뜻 나서지가 않았다. 다른 사람들처럼 유수의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거창한 소명의식이나 누구처럼 정의에 대한 타는 목마름으로 시험을 시작한 것도 아니었으며 뛰어난 재주나 특출한 자질과 품성, 하다못해 성실한 생활태도를 견지해 온 것은 더더욱 아닌지라 특별히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합격자 1,000명 시대에 별일도 아닌 일을 혼자 잘났다고 떠들고 다니는 시대착오적인 팔불출로 비취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나의 수험기간이나 방법론들이 짧거나 일반적이지 않아 수험생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까하는 의문도 들었다. 게다가 시간이 많이 지난 상태라 예전의 느낌과 기억을 정확히 되살린다는 것도 쉽지 않아 보였고 그 사이에 인식전반에 걸친 많은 변화로 합격기 자체에 대한 회의가 든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결국 글을 쓰기로 마음먹은 것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험정보들에 못지않게 시험과 인생에 대한 긴 안목과 호흡법을 전하는 것 또한 중요한 것이고 별 볼일 없는 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언젠가부터 내 어지러웠던 지난 시간들 속에서 얻은 경험들이 훗날 나에게 힘이 되어 줄 것이라는, 그렇기에 그 시간들은 결코 헛된 낭비가 아니었다는 자신감을 가졌다.

“모택동에 의해서 실각한 등소평이 결국 다시 중앙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것은 똥거름 지계를 저본 경험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것들이 부인할 수 없는 나의 일부이고 나 자신이라면 받아들이고 사랑하자는 용기도 생겼다.

‘이제 와서 어떻게 하겠는가? 그것이 바로 나의 인생인 것을’

## II. 철없던 고등학교시절

누구나 현재의 자신을 위치지우는 인생의 중요한 변곡점은 한두 개씩은 있다고 하는데 나에게 있어서 그 첫 번째는 고등학교에 진학 후 얼마 안돼서 생긴 그 사건이 아닌가 싶다(그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얘기였는데 이제야 조심스레 털어놓는다).

고등학교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반학생 모두가 보는 앞에서 흠뻑 두들겨 맞은 일이 있었다. 내가 옆자리 동료와 떠들어서 자신의 공부 방해되었다는 그 이유였는데 기실은 자신의 위치를 사람들에게 각인시킬 의도로 작고 여린 나를 대상으로 벌인 폭력시위에 불과했다(그 학생은 후에도 반에서 비슷한 이유로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는데 그 대상이 나와 비슷한 학생들에 국한되었던 것을 보면 더더욱 그러하다).

너무 분하고 억울했음에도 고등학교를 재수하여 들어와 나이가 나보다 한 살이 많다는 것과 불량스런 행동에서 풍기는 위압감에 눌려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맞기만 했다. 자율학습이 끝나고 집에 오는 길이 그렇게 길었던 적은 없었다. 어느 누구도 눈이 붓고 입술이 터져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가는 나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다. 집에 와서 억울하고 분해서 한참을 울었다.

부당한 폭력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다는 자괴감과 나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주체할 수 없는 복수심이 어린 나를 한참동안 혼란케 했다. 결국 그에게 나름의 복수를 하긴 했지만 그 사건은 평온했던 내 온실의 유리창들을 박살내고 세

상과 나를 새롭게 보게 만들었다. 내 안의 두려움의 실체를 보았고 공부 잘하는 아이라는 권위가 계급장 떼고 힘의 논리를 내세우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도 느끼게 되었다.

그 일이 계기가 됐는지 그 후론 공부에 흥미를 잃어버렸다. 그래도 자존심이 있어서 공부를 해보려했으나 한번 뒤쳐진 것을 따라잡기는 쉽지 않았다. 수업도 재미없어 더 공부를 하지 않은 것 같다. '왜'라는 의문은 항상 생기는데 태초부터 있었던 것인 양 가르치는 수학시간은 특히 재미없었다. 성적표 등수란의 숫자에 점점 무감각해지고 생활은 나태해져 갔다. 고 2때는 시험당일이 되어서야 시험 과목을 확인하고 답안지에 있는 특정숫자의 개수를 세는 것으로 점수 확인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

조금씩 조금씩 뭔가 잘못되어 간다는 느낌은 들었지만 되돌리기는 힘들었다.

공부를 하지 않으니 할 것이라곤 소설책과 음악뿐. '이동훈'이란 친구와 소위 '뺨판'이라는 복제음반을 사러 청계천을 돌아다니고 시답잖은 까뮈의 책을 들고 난상토론을 벌였다.

고 3이 되어 남들 따라 공부를 좀 해보았지만 잘될 리 만무했다. 그래도 대학 진학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막판에는 공부를 좀 했는데 뭔가를 바꿔보려 한 것이라기 보단 나만 가만히 있기 위해 책을 잡은 것에 불과했다.

자신 있게 옥쇄할 용기는 없어서 서울에 있는 모 대학 정치외교과에 지원을 했고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라는 편안한 마음으로 없는 실력에 상상력을 보태 시험을 치렀는데 용케 합격을 하게 되었다(지금 생각해도 신기할 따름이다).

### Ⅲ. 짧았던 대학생생활(1991년)

1991년 말로만 듣던 대학생이 되었다. 새롭고 즐거운 일들만 생길 것 같았다. 낭만과 열정의 캠퍼스 생활을 꿈꾸며 "다 잊고 이제라도 열심히 해보자."는 굳은 다짐도 했다.

대학생활은 고등학교시절보다 더 큰 활동영역과 인식의 확대를 가져왔지만 그것은 한편으로 사회일반의 구조와 인식에 가까이 다가감을 의미했다.

나와 내가 속한 대학에 대한 사회의 평가가 무엇인지 대강 감세를 췌다. 그것은 내가 무어라 소리 지르고 따진다고 해서 쉬 바뀔 성질의 것이 아니란 걸 직감했다.

한 개인의 힘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무엇...

이건 친구에게 두드러 맞은 것을 복수하느니 마느니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다. 몇몇의 동료는 거기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발 빠르게 준비하고 있었지

만 대부분은 그에 순응하고 위안과 나름의 대안을 찾는 분위기였다.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후회와 자책감이 이도저도 결정하지 못하는 내 자신에 대한 짜증과 함께 공존했다. 이내 학과공부도 사람들과의 만남도 시큰둥해지고 대학생활도 시들해졌다.

당시 대학가는 정치권의 3당합당을 비난하고 강경대군의 죽음을 규탄하는 시위가 한창이었던 때라 뭐 재미있는 거라도 있을까 해서 사람들 따라 거기에도 몇 번 참여해 보았지만 경찰들과의 숨바꼭질도, 포물선을 그리다가 불꽃을 날리며 터지는 화염병도, 집회 후에 벌이던 술자리도, 한두 번이 지나자 별 감흥이 없어졌다. 사람들의 행동이 유치해보이고 위선적으로 느껴졌다. 소위 뒤떨어지는 신입생들이 유행가를 부르며 흥을 돋은 뒤 선배 학생들이 시국강연을 하고 마지막으로 ‘아침이슬’이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다 같이 엄숙히 합창하며 끝나는 것이 상례였는데 강연내용은 물론이고 순서까지 식상해 있던 나는 언젠가 뒤떨어기가 시작되자마자 ‘아침이슬’을 혼자 엄숙하게 부른 후 자리를 나왔던 기억이 난다.

그 날 이후 선배학생들도 나도 서로를 찾지 않은 것은 물론이다.

뚜렷한 삶의 목표가 보이지 않았다. 무엇을 해야 할지 심지어 무엇을 하고 싶은지도 알지 못했다. 목표도 없이 학교를 오가며 시간만 보내는 내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잠시 쉬면서 진로를 고민해볼까도 생각했지만 구차한 것 같아 깨끗이 그만두기로 결심하였다.

그렇게 나의 대학생활은 1학기도 채 마치지 못한 채 끝났다.

신념과 철학도 없이 서류만을 쫓은 자의 당연한 귀결이었으며 모든 것이 주관에 달린 것임을 모르고 그 대상만을 탓하던 시기의 치기어린 작태였다.

## IV. 길 위를 홀로 걷다(1992년~1998년)

### 1. 자퇴 후 입대까지

학교를 그만두고 군에 입대할 때까지 근 2년 동안 소설과 음악, 영화에 빠져 시간을 보냈다. ‘김현’과 ‘김병익’의 현학적인 평론에 빠져 평론가를 꿈꾸기도 했고 ‘전영혁의 음악세계’란 프로를 받듯도록 애청하며 명동의 ‘부루의 트락’으로 청계천으로 음반을 사러 다녔다. 부모님께는 열심히 공부하여 소위 일류대학에 진학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긴 했으나 나 자신은 실제 대학진학에 별 뜻이 없는 상태였다. 대학을 가지 못한 것에 대한 불안감이 없지 않았지만 난 잘될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과 나만의 길을 가겠다는 오기로 견뎌갔다. 자유롭게 규정되지 않은 삶을 살고 싶었다. 그것이 또 가능하다고 믿은 시기였다.

1993년 입대를 하여 조치원에 있는 탄약관리부대에서 보병으로 2년간을 근무하였다. 군에 있는 동안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 나를 끄떡이도 아껴주셨던 분인데 살아생전 실망만 안겨드린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아팠다. 언젠가 유품을 정리하면서 일찍이 떠나보낸 당신의 둘째아들 사진과 당신사진이 나란히 붙어 있는 명함 뒤에 자그맣게 쓰여 있는 글을 본적이 있다.

“노인은 오래 살았다고 해서 영예를 누리려는 것이 아니며 인생은 산 햇수로 재는 것이 아니다. 그는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 하느님의 사랑을 받았다.”

홀로 쓸쓸히 병마와 싸워가며 느끼셨을 당신의 외로움과 고통이 가슴에 전해와 한참을 숨죽이며 울었던 기억이 난다.

1995년 제대를 하였다. 할 말은 많은 데 한 것은 별로 없는 곳, 그게 군대다.

## 2. 방향과 좌절

제대 후 부모님의 권유로 이모님이 계시는 일본에 갔다. 공부도 하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해보라는 것이었는데 길은 찾지 않고 골프공만 찾다가 결국 부모님의 성화로 다시 돌아왔다.

군대도 갔다 왔는데 언제까지 예전과 같은 생활을 할 수만은 없었다. 부모님 역시 더 이상의 지원은 하지 않으시겠다고 밝히신 상황이라 이전 세상에 나가 스스로 내 삶을 개척해야했다. 세상이 어떤 곳인지 경험해 보고도 싶어졌다. 경험이라곤 전무했으면서 마음만 먹으면 못할게 뭐있겠냐며 호기를 부릴 만큼 나에게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게 보였다.

나의 생애 첫 직장은 명동근처에 있었던 조그마한 사진회사였다. 외국에서 사진을 구입해서 일정한 돈을 받고 광고회사에 빌려주는 사업을 하는 회사였는데 ‘사진’과 ‘광고’라는 말에 끌려, 실상은 내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달랐지만, 들어간 곳이었다. 광고회사가 원하는 사진을 제공하자면 회사가 보유한 사진부터 파악하는 것이 순서인지라 나의 첫 직장일은 확대경으로 사진을 들여다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회사분위기도 파악하고 잔무도 익혀나갔다. 일 자체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무료했다. 그 때문이었는지 사람들은 온종일 라디오방송을 틀어놓고 일을 하였고 거기에 박봉 탓에 점심까지 사무실에서 해결하는 것을 보니 이곳이 바로 전태일의 소설에 나오는 봉제공장이 아닐까하는 착각이 들기도 하였다. 청일점이었던 탓에 직장사람들과도 적응하기 힘들었고 45만원이라는 월급은 차치하고 일 자체가 단순해서 견디기 더 힘들었다.

마음은 결코 숨길 수 없는 법!

“업무에 어려운 점이라도 있느냐”는 사장의 은근한 1차 경고가 있는 후에도 업무태도의 적극성을 보이지 않자 상사의 노골적인 압박이 가해졌다. 언제부터 가는 “나가라”는 소리로 바뀌어 있었다. 직장 일을 시작한지 두 달째 되어갈 무렵 출근하고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10시의 명동이 보고 싶다는 강렬한 욕구를 받았다. 사표를 내고 회사를 나와 그 많던 출근인파가 사라진 황량한 10시의 명동거리를 한참을 걸어 다녔다.

재미로 첫 직장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 붙여본다. 어느 날 광고회사 직원이 와서 ‘চিতা’ 사진을 요구한 일이 있었는데 직원 한명이 골라 건네준 사진을 본 광고회사직원이 “왜 온통 원숭이 사진뿐이냐”고 한 일이 있었다. 그 직원이 잘못 알아듣고 실수했거니 했다가 집에 와서야 그 이유를 깨닫고 한참을 웃은 일이 있다(그래서 T.V가 무섭다고 하나보다).

첫 직장에서 경험을 통해 나의 가치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 사무직이란 이름이 걸려있는 일자리에 고졸학력인 나에게 주어지는 일이 무엇인지 대강 알게 되었다.

그냥 땀 흘리며 살자고 다짐했다. 기술을 배우고 익히면 먹고는 살겠지. 좀 편하자고 원치도 않은 일을 할 바에야 그냥 땀 흘리며 당당하게 살자. 부모님께 도움을 청해볼까도 했지만 부모님과 많이 틀어진 상태라서 오기도 발동했다.

마침 거제도에 있는 대우조선소에서 일할 사람을 뽑는다는 구인광고를 보았다.

“그래 떠나자! 뭔가 새로운 일이 있을 거야.”

1996년 난생 처음 거제도란 곳을 구경했다. 도착 첫날 업체의 사장이 조선소를 구경시켜 주었는데 정말 모든게 컸다. 배를 만드는 공정은 여러 작업을 거치는데 이를 모두 대우조선측이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을 하청업체에 하도급, 재하도급하여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나는 배의 내부에 전선을 연결하는 일을 하도급 받은 업체에 속하여 몇 달간 그곳에서 일을 하였다. 처음 조선소의 일은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작업복을 입고 땀 흘리며 일하는 사람들이 정직해 보였고 낭만적인 근로자의 생활을 기대하며 이곳에 정착하여 살아볼까라는 생각도 잠시 가져보았다. 여러 작업장에서 만들어진 배의 조각들을 모아 용접을 한 후 배를 바다에 띄우면 그때 전선을 설치하러 들어가게 된다. 배를 만들기 위한 여러 작업들은 특별한 일이 아니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어서 배안은 소음과 먼지가 항상 가득했다. 마스크를 신청자에게 나눠주는 했지만 배안이 원래 답답한데다 그것까지 쓰면 사우나 실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라인더 작업

을 하는 사람을 제외하곤 대부분 쓰지 않고 일을 하였다. 작업 시에 나오는 쇧가루 때문에 그라인더작업자들은 산소마스크까지 착용해가며 일을 하는데 정작 그 쇧가루를 다 마시는 다른 작업자들은 마스크도 없이 일을 하는 곳, 그곳이 바로 내가 일하는 작업장이었다. 같이 배에서 작업을 해도 원수주업체인 대우조선에 속하는 근로자와 다른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작업복은 물론이고 하는 일 작업종료시간에 이르기까지 차이가 있었다. 요즘말로 치면 ‘비정규직 차별’인 셈이었다.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은 그 어디든 계급이 반드시 존재하게 되어 있는 것일까?

작업환경은 열악했고 무엇보다 아무 연고도 없이 기숙사에서 계속 생활하려니 외로웠다. ‘마리’와 헤메치는 꿈을 꾸려고 자기 전에 자주 ‘이방인’을 읽었던 기억이 난다. 한 3개월 일을 하다 서울에서 다른 일을 찾아보기로 하고 올라왔다(일하는 동안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던 ‘김명호’란 분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서울에 올라와보니 부모님의 태도가 많이 달라져 계셨다. 장남이 그렇게 일하면서 떠돌아다니는 게 안쓰러우셨는지 아버지께서 아시는 분을 통해 일자리를 알아봐 주신다고 하셨다. 못이기는 척 도움을 받을까도 했으나 자존심이 허락지 않았다.

“스스로 내 인생을 책임진다고 하지 않았는가?”

얼마동안 일자리를 구하려 다니다가 운전 가능한 현장직원을 뽑는다는 업체를 찾아갔다. 사무실에 칸막이를 치는 일을 하는 곳이었다. 첫날, 칸막이를 등에 지고 계단을 오르는 동료들을 보고 별거려니 하고 등에 짊어졌다가 큰일이 날 뻔했다. 그 무거운 것들을 짊어지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사람들을 기인이라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어느새 기인이 되어 있었다(거기서 일한 탓에 나중에 그렇게 벽돌을 잘 졌는지 모르겠다). 빈 사무실에 새롭게 칸막이를 치는 경우도 있었지만 사무실에 이미 세워져 있는 칸막이를 뜯고 다시 치는 경우에는 사무실 사람들이 퇴근하길 기다렸다가 일을 시작해야 해서 밤늦게까지 일할 때가 많았다. 일이 제대로 겹치는 날엔 아침부터 새벽까지 일하기도 했다.

한번인가는 피곤한 탓에 운전도중 잠깐 졸다가 큰 사고가 날 뻔한 적이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남산 3호 터널 입구에서 잠이 들었다가 커브길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다행히 눈을 떠서 사고를 면한 일이 있다. 갑자기 벽이 나타나서 깜짝 놀라 핸들은 쥐고는 가슴을 쓸어내렸던 기억이 난다.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다.

한 10개월 일을 하다 너무 힘들어 그만 두었다.

그 후에도 여러 일을 하였으나 결론은 항상 같았다. “노동이란 것 정말 쉬운 게 아니구나!”

육체노동을 해가며 평생을 산다는 게 쉽지 않아보였다. 거기에 미래가 뚜렷이 보이지 않는 현실은 사람을 더 지치게 하였다. 계속 노동을 통해 삶을 유지할 자신이 없어졌다.

참으로 힘들고 끝없는 고통의 길이 노동이란 걸 알았다.

## V. 새로운 도전

### 1. 1998년 가을 어느 날...

1998년 가을 문득 돌아켜보니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 있었다. 그러나 모든 게 예전 그대로였다.

이제 또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에게 물어보았다. “무엇을 얻었는가?” “무엇을 더한다면 이제 만족하겠는가?”

이젠 이런 소모적인 여행을 끝내야 할 시간이 왔다고 생각했다. 언제나 길 위에 있었다고 다짐했었지만 철없는 시절에 내린 성급한 결론이었다.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리되지 않은 삶일 뿐이었다. 내가 가진 신념들은 모두 환상에 불과했고 설익은 궤변에 불과했다. 개성을 살리다보면 남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나의 생각은 참으로 무식하고 순진한 착각이었다. 내가 추구했던 삶은 결국 허상이었고 내가 지나온 삶은 낭비의 연속이었다. 지금 상황에서 어딜 가서 무얼 해도 일당노동자의 삶이며 느낄 수 있는 것은 예전의 반복에 불과할 뿐이란 걸 알았다. 상황의 새로움이 얼마간 나를 자극하고 익숙함에서 생기는 요령이 나를 조금 편하게 할 뿐이었다. 앞으로의 내 모습이 자신 없어지고 두려워졌다. 새로운 전환이 필요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한동안 집에 처박혀 지내면서 진로를 고민하였다. 지난 방황의 시간들이 날 변화시켰던 것일까.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뭘 해야 할지 대답할 수 있었다.

“공부를 하자.” 국가고시를 보자. 그리고 할 바엔 최고시험이라는 사시를 도전해보자. 내 잠재력을 확인해보고 싶었다. 내가 정말 멍청한 놈이 아니란 것을 마지막으로 어떻게든 보여주고 싶었다.

“이제 하다하다 별걸 다하는구나!”라는 부모님의 역정도 들리지 않았다.



## 2. 새로운 도전

### (1) 시행착오의 날들

합격기를 읽어 내려갔다. 몇 번을 읽다보니 감이 좀 잡혔다.

“무리하지 말고 긴 호흡으로 천천히 준비해야겠구나.”

합격자들의 조언대로 민법총칙을 읽는 것으로 시험공부를 시작하기로 하고 교보문고로 달려갔다. 다수가 추천하는 곽윤직 교수의 교재를 뽑아들려다 더 두꺼운데다 강렬한 빨간색의 표지까지 두르고 있는 이영준 교수의 책을 발견했다. 남들이 다보는 책보다는 뭔가 새로운 것으로 시작하고 싶었다. 무엇보다 머리말에 적힌 “실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라는 구절이 계시처럼 다가왔다. 책을 사들고 집에 오는 내내 느꼈던 그 뿌듯함이란..

집근처 종로도서관에 자리를 잡고 머리말부터 차근차근 읽어갔다. 중요한 부분이다 생각되면 연필도 아닌 볼펜으로 힘 있게 밑줄을 쳐가며 전의를 불살랐다. 책은 금세 볼펜 똥으로 범벅이 됐지만 합격은 눈앞에 선명히 다가오는 듯했다. 기존의 지식과 풍부한 상상력, 대범한 생략법을 동원하여 민법의 ‘의의’와 ‘법원’ ‘해석’을 넘어갔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외치며 3일째를 넘겼으나 ‘법률행위’ 부분에서 결국 사달이 난다.

조용히 책을 덮고 도서관에서 나와 말없이 뒷산에 올랐다. 암담했다. 나머지 민법 과목에 다른 법들까지 생각하니 눈앞이 깜깜했다. 그러나 합격자들도 대부분 처음엔 나와 비슷한 상태를 한 번씩은 겪었음을 위안삼아 기운을 차린 뒤 법을 공부할거면 아예 최고의 법이라는 헌법부터 해보자고 마음을 고쳐먹었다.

정치와 관련한 법이라니 아무래도 이해하기 쉽지 않겠냐는 막연한 희망을 품고 교보문고로 다시 달려갔다. 이번엔 좀 얇은 것으로 시작하자면서 일단 김철수 교수의 책을 제외시킨 다음, 헌법에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준 책이라는 합격기의 글귀를 떠올리며 조심스럽게 골라온 책이 ‘허영’ 교수의 책이었다. 이번엔 제 1장부터 말썽을 부렸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형법까지 기본 3법을 한번 훑어보자는 마음이 들었다. 이번엔 어떤 일이 있어도 다수의견에 따르고 하고 이재상 교수의 책을 구입했다. 이젠 ‘행위론’ 정도는 담담히 받아들일 만큼 배포가 커져있었다.

일단 해당과목을 전체적으로 살펴 보고나서 세부적으로 공부해 가자는 계획을 세웠다. 학원 강의를 들어보면 전체적인 파악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됐다.

물어 물어 찾아간 신림동. “여기였구나!”

6개월 가까이 집과 신림동을 오가며 열심히 강의를 들었다. 그런데 강의를 들을 땐 뭔가 감이 잡히고 이해가 되는 듯 했지만 집에 와서 다시 책을 펴면 여전히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에 서있기는 매한가지였다. 문제는 이해인데... 이해를 해야 될 하든 하지 강의만 듣고 앉아있다고 될 일이 아니었다. 괜한 품만 잡고 앉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 (2) 본격적인 공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내 힘으로 책을 이해해가기로 하였다. 나만의 체계를 세우는 것을 모토로 정하였다. 조용한 집근처의 도서관을 공부장소로 정하고 회독 수나 진도를 고려하지 않은 철저한 이해위주의 책임기를 시작하였다. 모르는 부분은 넘어가지 않고 다른 교수의 저서나 논문 등을 참조하거나 강의 테이프를 듣는 방식으로 의문을 풀어가려고 하였다. 더욱 선명한 이해를 위하여 케이스도 풀어보고 객관식문제도 풀어보는 등 이해의 도구가 될 만한 것들은 가리지 않고 들춰보았다. 서울에 다녀온 많은 사람의 얘기를 듣고 머릿속에 남대문을 그려가는 셈이었다. 도대체 당해 문제가 어떠한 상황을 전제로, 어떠한 관련에서 제기되어, 무엇을 설명하려 한 것인지를 파악하려고 진력했다.

그러나 의욕만으로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 시간도 필요했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다. 주위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쉽게 오를 수 있는 언덕도 혼자 오르다보면 무릎이 깨지고 손바닥이 까지는 법이다. 기초를 잡아줄 수 있는 누군가만 있다면... 공부초기 이곳저곳을 뒤져봐도 도통 이해가 되지 않을 때면 들던 생각이었다.

정제도 있었고 때론 후퇴도 있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책을 읽어나갔다. 나의 시험초기 공부방법을 잠시 소개해본다.

민법의 경우 양창수 교수의 '민법입문'을 통해 감을 잡은 후, 민법이 법학이나 수험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고려하여 심도 있게 공부하자는 생각으로 민법의 편제체계에 맞춰 각각 하나씩의 교과서를 읽어나갔다(소위 말하는 '5권주의'). 형법의 경우는 신호진 님의 학원강의를 테이프로 기초를 다진 후에 이재상 교수와 김일수 교수의 교과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더해 나갔다. 헌법은 권영성 교수의 교과서에곽순근 님의 강의와 교재를 보충하여 진행하였다. 나의 경우 교수님들의 교과서를 중심으로 공부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이는 문장력이나 논리의 전개 방식을 익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2차 공부에도 이러한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데 예를 들어 상법의 경우, 후에 정찬형 교수의 '상법강의-上下'로 전환했지만, 처음 공부할 땐 '4권주의'를 택하여 공부하였다. 깊이 공부해보겠다는 욕심도 작용했지만 예전 80년대의 낭만적인 합격기에 감명 받은 탓도 컸다.

그렇다고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가겠다는 건 아니다.

이런, 어찌 보면 신선놀음식의 공부 가능했던 것은 조금해하지 말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공부해가자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출발했기에 가능했다. 물이 차면 당연히 넘치듯이 법을 제대로 알면 시험도 자연스레 붙지 않겠냐는 여유를 가지려고 하였다. 물론 실제 시험을 치루면서 이해하는 것과 이를 실제 시험장에서 현출시키기는 것은 약간 다른 문제이고 여기에는 약간의 요령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긴 했지만 역시나 그것은 '약간'에 불과하며 결국 중요한 것은 정확하고 깊은 이해라고 생각했다.

“사랑을 표현함에 있어 요령도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그 진실한 마음이 아니겠는가?”

빨리빨리 시험에 붙어 으스스대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빨리 어떻게 해보겠다고 수험일정에 쫓겨 일 년 단위의 공부를 반복하다보면 10년을 공부해도 ‘송판의 얇은 부분만을 반복해서 뚫는’ 우를 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계속 1점 차이로 떨어지기를 10년간 반복할 바에 5년간 깊이 공부해서 확실히 붙자.”는 단순한 전략을 세웠다. 게다가 단기간에 승부수를 띄워보고 그 진로여부를 결정해야 할 만큼 중요한 ‘다른’ 일이 없었다. 더 할 것도, 하고 싶은 것도 없다보니 오히려 여유가 생겼다. 어차피 이리된 것 이제 와서 서둔다고 뭐가 달라지겠냐고 마음을 편하게 먹었다.

### (3) 혼란에 빠지다

이런 사고는 수험기간 전체에 걸쳐 내 근처에 흐르며 내가 공부방법의 수정여부를 두고 흔들리거나 고민할 때 나를 다잡아 주었지만 수험기간이 길어지면서 생기는 문제들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

신선놀음을 한다고 신선이 될 순 없다.

나 역시 고시선배들이 겪었던 길을 걷지 않을 수 없었다. 수험기간이 길어지면 나태함과 무기력 심지어 의구심이 들기도 하였다. 내가 공부 후 처음으로 시험을 보았던 것은 2000년이다. 분위기를 읽힌다는 차원에서 처음으로 1차 시험을 보았다. 기대는 당연히 하지 않았기에 불합격여부로 상처받을 일은 없었다. 시험장을 구경하고 시험지를 받아본 것에 의의를 둔 시험이었다.

2001년은 한 2~3년 시험 준비했으니 실력을 테스트 하는 차원으로도 시험을 볼 수도 있었지만 1차 시험의 응시횟수를 제한하는 제도 때문에 괜히 어설픈게 시험을 보았다간 낭패를 보겠다 싶어 완벽히 준비해서 시험을 보기로 하고 지나갔다.

2002년엔 나름대로 1년을 차분히 준비했는데 예상과 달리 큰 점수 차로 떨어졌다. 객관식시험을 너무 우습게 본 탓에 충분한 준비를 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었다. 2시간이 그렇게 빨리 간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긴 호흡이니 여유니 떠들고 다녔지만 막상 불합격을 대하니 말뿐이었다. 그래서 사람은 당해봐야 한다. 불안하고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최종합격은 아무리 빨라도 내내년이었다. 그것도 내년 1차에 합격한다는 전제에서나 상상을 해볼 만한 일이었다.

올해, 내년, 내내년..... 3년이란 시간이 단방에 눈앞에서 죽어나갔다. 2년 2개월을 보내기가 그렇게 힘들어 관물대안에 달력을 붙여놓고 엑스 자를 쳐가며 하루를 지워갔는데 고시의 세계에선 3년이 기본이었다.

2003년 다시 1차를 치루기까지 1년간, 이때가 좀 힘들었다.

이미 답은 알면서도 그래도 발표는 확인해 보는 게 사람이다. 눈앞에서 불합격을 확인한 날 교대에서 친구를 만났다. 술을 마시며 이런저런 넋두리를 늘어놓는 내가 예의 T.V에서 종종 낙제인생의 전형으로 묘사되던 그런 고시생으로 보였던 것 같다.

“언제까지 할래?”

“.....”

“그만 꿈 깨고 이젠 널 인정해라!”

일찍 집으로 향했다. 술 좀 깨려고 걷다가 대법원 앞길로 들어섰는데 ‘Idaho’의 그 길이 눈앞에 펼쳐졌다. 무작정 걸었다. 반포대교를 건너고 남산터널 위의 소월 길을 지나 남대문으로, 시청으로. “왜 떨어졌을까?” “과연 내가 될까?”를 수없이 물어보며 걸었다. 한참을 걷다보니 불합격의 슬픔이고 뭐고 허리가 아파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게 또 사람인거다. 군에 재입대하라는 영장을 받고 병무청 앞에서 소리치다 깨는 날이 자주 있었던 시기였다.

#### (4) 나를 다잡으며

공부가 잘 안됐다. 사람이 게을러지고 도서관에 앉아 딴 생각을 하게 되고, 안 되겠다 싶어서 정신을 다 잡을 겸 노가다를 시작했다. 신촌에 있는 인력사무실로 나갔다. 인력사무실은 아침에 일찍 나가야 한다. 그래야 소위 말하는 ‘대마치’를 안 맞는다. 그래서 일은 7시부터 시작해도 5시에는 일어나야 한다. 일찍 일어나려면 일찍 자야 되는 것은 기본이다. 첫날, 자다가 5시에 일어나기는 힘들 것 같아 그냥 잠을 안자고 나갔다. 어둡고 좁은 계단을 따라 4층에 있는 사무실에 도착하니 벌써 적잖은 사람들이 와있었다.

첫날 출근하는 신참은 일은 이미 정해져있다.

“어이! 오늘 처음 왔지? 이삿짐 좀 나르다와”

일반 이삿짐센터에서 사람을 쓴다는 것은 그만큼 일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도 가기 싫어했던 것이고. 뭐든지 첫날은 힘든 법이다. 그 동안의 나태함이 얼마나 나의 몸을 망가트렸었는지 알 수가 있었다. 막말로 죽는 줄 알았다.

그 첫날을 아직도 기억한다. 얼마나 땀을 흘렸는지 등 부분이 염전이 되어있었다. 일 끝나고 술 한 잔하고 가자는 직원의 제의를 손사래를 치고 버스를 올랐다. 덜컹거리는 의자에 앉아 창밖의 노을을 멍하게 바라보는데 라디오방송에서 나오는 노래를 듣고 있으려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맺혔다.

“해 저문 어느 오후 집으로 향한 걸음 뒤엔...”

서툴게 살아왔던 후회로 가득한 지난 날.

그리 좋진 않지만 그리 나쁜 것 만도 아니었어...

힘든 일도 있지 드넓은 세상 살다보면

하지만 앞으로 나가, 내가 가는 곳이 이 길이다.”

다음날 나갈까말까를 고민하다가 “인생을 낭비한 죄에 대한 책임을 저야한다.”는 울림으로 집을 나섰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오기로 연장해갔는데 결국 2달을 넘게 일을 하였다.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도 노가다를 가끔씩 하긴 했지만 이번처럼 매일 출근하며 일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렇게 힘들던 몸도 시간이 지나니 점점 적응을 하였다. 아침도 가볍고 일도 견딜만해졌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오히려 건강해졌다.

그 당시 월드컵이 한창이었는데 전 국민을 열기로 몰아넣었던 월드컵도 나에게겐 먼 나라 얘기였다. “대한민국 월드컵 첫 골!”을 흥분하며 외치던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아득히 느껴지며 잠에 빠졌던 기억이 난다.

일이 얼마정도 익숙해지자 인력사무실 소장이 어느 날 벽돌을 나르는 소위 ‘곰방’을 해보라고 했다.

“일은 되도 돈은 된다!”

돈 벌려는 건 아니었지만 일이 힘들다니 한번 해보야겠다 싶었다. 처음이라서 그런지 좀 수월한 곳으로 보내주었다. 그러다가 조금씩 힘든, 그러나 소위 ‘단가’는 높은 곳으로 보내기 시작했다. 허접해 보이는 일당 노가다 사무실도 사람을 관리하는 매뉴얼이 다 있었던 것이다. 그 사무실에서 가장 단가가 높은 ‘곰방’일은 경력도 많고 사무실에 오래 출근하여 기여도가 높은 사람들에게 배정되는데 일종의 특혜였다. 어느 날 그 특혜를 소장으로부터 하사받을 사람이 결근을 하

였다. 그날따라 그 일을 할 마땅한 사람이 없었다. 예비특혜자들 중 몇 명은 결근하였고 나머지 몇 명은 일이 힘들어서 안한다고 거부를 하자 나에게까지 기회가 왔다.

“한번 해볼래?”

그 일이 힘들다는 것은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사람이 하는 건데 못할 일이 뭐 있겠냐 싶고 한번 얼마나 힘든 일인지 구경 한번 해보자는 심정으로 “그렇겠다.”고 하고 사람들을 따라 나섰다. 이유도 없이 돈을 많이 줄 리가 없다. 벽돌 2만장, 시멘트 1천 포대를 5명에서 5층 신축공사장에 올리는 일이었다. 역시, 역시나였다.

“기껏 나왔다가 그냥 가버리면 어떻게 하느냐”는 현장소장의 핀잔도 모른 채 하고 와버렸다.

소장에게 자초지종을 말했더니 묘한 비웃음을 지며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하는 것이었다. “그럴 줄 알았건 몰랐건 나하곤 상관없다.”며 사무실을 나왔는데 집에 오는 내내 계속 그 말이 날 자극하는 것이었다.

얼마 후 소장에게 말하고 다시 그 특혜의 현장으로 나갔다. 지난번에 벽돌을 다 올렸는지 벽돌은 사라지고 없었다. 얘기를 들으니 그날은 자갈을 올린다고 하였다. 조금 있으니 자갈을 실은 15톤 덤프차가 와서 짐을 부리고 갔다. 좀 일이 적다 싶더니 한차가 더 왔다. “그럼 그렇지...” 그렇다 해도 상당한 양이었다. 그런데 잠시 뒤 한차가 더 오더니 알뜰하게 짐을 부리고 가는 것이었다. 말이 안 나왔다. 정말 산더미란 말이 어울렸다. 별생각이 다 들었다. “과연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은 당연하고 “그냥 집에 갈까?” “튀라고 하고 집에 가지?” 심지어 ‘만약 허리를 다치면 누구에게 어떻게 보상요구를 하지’ 까지... 불만에 입술을 찔룩거리며 나르길 한참, 조금씩 조금씩 나르다보니 어느새 아침보다는 양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오후 5시가 되자 그 많던 자갈들이 모두 건물 안으로 옮겨졌다.

그날 나는 내 신진대사능력의 한계를 확인하였다. 끝없이 흐르는 땀, 물을 먹어도 먹어도 가시지 않는 갈증, 지금은 끊은 지 꽤 됐지만 당시는 담배를 피웠는데 그 날 난생 처음으로 3갑을 피웠다. 비 오듯 쏟아지는 땀에 노폐물들이 다 배출되었는지 피워도 피워도 담배를 피운 것 같지 않았다.

그 일을 끝내고 나선 ‘곰팡’엔 자신이 생겼다. 그리고 그 일 후론 노가다를 해서 고생 좀 해야 한다는 강박과 의무감에서 자유로워졌다.

### (5) 다시 시작하기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은 노가다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공부를 시작하였다. 여름을 그렇게 맘을 흘리며 고생해서 그랬는지 2003년 1차 시험에 무난히 합격을 하였다.

개선장군이 되어 신입동으로 2차 수험서를 사러갔다. 상원서적에 당당히 들어가서 크게 외쳤다.

“2차 시험용 수험서 어느 쪽에 있죠?”

4년 넘게 공부하면서 2차 준비도 조금씩 해놔서 1년 정도만 잘 정리하면 합격이 가능하리라 생각됐다. 합격기를 읽다보니 다들 민사소송법과 행정법에서 많은 고전을 했다가에 어차피 공부할 것이라면 미리 해놓자는 심정으로 1차 공부를 하는 동안 이시윤 교수와 김동희 교수의 교과서를 3법과 같이 공부해왔던 터라 오히려 자신이 있었다. 기본과목조차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2차 과목들을 이해해보겠다고 한 것은 무모한 발상이었지만 기본과목들에 대한 이해가 진행되면서 상호적으로 민소법과 행정법의 이해도 더 빨리 진행되었고 그러면서 다시 기본 3법도 더 잘 이해되는 새로운 경험을 하였다.

### (6) 깊이를 더해가다

2003년과 2004년은 법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던 시기였다. 교과서 읽기가 상당히 수월해지면서 한편의 교과서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니 그와 관련한 어느 책을 보아도 이해가 되었고 그런 상호보완적인 책읽기를 통해 법에 대한 인식을 높여 갈 수 있었다. 기본서외에 과목당 최소 두 개 이상의 교과서를 추가로 구비하고 케이스집이나 판례집 등 다른 보조 자료들도 구입하여 읽어 내려갔다. 기본서를 읽어가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나오면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해당부분에 관한 여러 교과서의 서술을 비교해가며 이해를 늘려갔다. 또한 민법주해는 물론이고 교과서의 각주에 인용 처리되었거나 사법논집, 재판자료, 형사법연구, 특별법연구 등 전문서적이거나 교수님들의 ‘還曆’ 또는 ‘停年’기념논문집 등에 실린 논문이나 글들은 필요하다 싶으면 복사해서 읽어보았는데 선명한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런 논문이나 자료들은 공공도서관에 가면 구할 수 있었는데 나는 특히 안국동에 있는 헌법재판소의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였다(5층 도서관에서 근무하시던 여사서 분께서 나에게 많은 배려를 해주셨다).

한번은 그곳에서 논문을 보다가 고등학교시절에 같이 공부했던 ‘천경훈’이란 친구(현 김앤장소속 변호사)가 쓴 학위논문을 발견하고 바로 앞에서 친구를 대할 듯 반가웠고, 한편으로 그 방대한 참고문헌에 놀랐던 기억도 새롭다. 수험교

재는 1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수님들의 교과서를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다른 보조교재들을 추가하였는데 보조교재 역시 교수님들의 것을 주로 이용하였다. 그러나 학원 강사님들의 저술이라도 필요한 경우 구입하여 참조하였다. 형소법의 경우 이재상 교수의 교과서를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신이철 님이 쓰신 ‘판례연구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의 쟁점’을 보조교재로 하여 공부하였는데 특별히 다른 교과서를 참조할 필요가 없을 만큼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양창수 교수의 ‘민법연구’ 제 2, 5권  
송명섭 님의 ‘현대형법학의 중요쟁점’(법률출판사)  
이상돈 교수의 ‘형사소송법연습’과 ‘법학입문’  
‘행정법연구’에 실린 박정훈 교수의 논문들  
일독을 감히 추천해본다.

나는 오래 반복해서 보기 보단 여러 저자의 책을 읽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나갔고 그러는 과정에서 체계를 잡다보니 수험기간이 길어진 건 사실이다. 여러 ‘번’ 보기보다는 여러 ‘권’을 보는 방식인데 한편의 책을 중심으로 하여 회독수를 늘려가는 것이 분명 2차 시험엔 유리한 것만은 분명하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으로 비유해보자면, 회독수를 늘리는 것은 덜 빠지게 하는 것이고 양을 늘리는 것은 많이 들이 붓는 것이라 하겠다. 2004년 기득권으로 도전한 2차 시험에서 불합격했던 것도 그러한 집중적인 반복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은 많이 들이 붓는 방식으로 독을 채웠다. 습관을 바꾸는 게 쉬운 건 아니었기 때문이다.

철저한 이해 후 수 없는 반복, 그 이상은 없다고 생각한다.

### 3. 마침표를 찍다

2004년 기득권으로 도전했던 2차 시험에서 떨어졌다. 다소 기본이 언짢긴 했으나 예전과 같은 충격은 없었다. 다시 하면 되고 해야만 했다. 무엇보다 자신이 있었다.

불합격을 뒤로 하고 2005년 1차를 위해 정진하였다.

정말 문득, 외로움이 밀려왔다.

나를 그냥 놔주지 못하고 끊임없이 괴롭히는 내가 불쌍하게 느껴졌다. 어둡고 낯선 길 위에서 피로를 슬픔삼아 울었던 시절이 떠올랐다.



어느 날 새벽, 하염없이 내리는 저 하얀 눈을 맞으면 새롭게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책장을 덮고 눈을 따라나섰다. 아무도 없는, 길이 사라진 눈길을 걸으며 그 길이 끝나지 않길 바랐다.

2005년, 내 오랜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길에서 잠시 내려와 쉬어도 좋다는...

## VI. 다시 길을 나서며

많은 얘기를 해주고 싶었다. 지우고 다시 쓰기를 수차례, 결국 다 쓰질 못했다. 온 힘을 다했지만 아쉬움은 여전하다. 다만 그 마음만이라도 전달되었다면 그것으로 위안을 삼고 싶다. 결코 지금의 상황에 좌절하지 않았으면 한다. 아픔은 잠시일 뿐이다. 설사 좀 늦으면 어떤가?

다시 또 시작하면 된다. 자신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한다.

여러분이야말로말로 최고의 사람들이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자신의 선택을 믿고 흔들리지 않은 채 조금씩 조금씩 전진해 간다면 곧 이루어지리라 믿는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나의 곁에서 기도해주었던 부모님과 동생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